

한국판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 타당화

이 영 철

이 은 희[†]

해군리더십센터 교관 (전)경남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사)한국심리도식치료협회장

본 연구는 Cramer 등(2022)이 개발한 군인의 자살태도 단축형 척도(Military Suicide Attitudes Questionnaire - Short Form [MSAQ-SF])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장교·부사관·병사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1월 창원소재 해군부대에서 수집된 345명의 장병 데이터를 홀수 그룹과 짝수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으로 2024년 3월 184명의 해군 장병의 데이터를 별도로 수집하여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첫째, 원 척도의 4요인(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에 포함된 18문항 중 요인 적재량이 부족한 3문항을 제거하고 4요인 15문항으로 검증한 결과 척도의 내적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가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셋째, 척도의 교차타당화 결과 개발된 척도의 수렴/변별타당도 및 우울, 자살생각 등 자살태도 관련 변인과의 준거타당도는 양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 군대 내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현장에서의 실질적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연구의 시사점과 제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군인의 자살태도, 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

[†] 교신저자 : 이은희, (사)한국심리도식치료협회,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남1길 3 가고파빌딩 4층,

Tel: 055-245-7660, E-mail : ehlee@hanmail.net



Copyright ©2026,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우리 군(軍)은 다른 조직보다 엄격한 통제가 제도화되어 있고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상급자의 명령에 의한 임무를 하급자는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의견충돌이나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율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박승일, 이동귀, 2014; 박일 등, 2013). 이러한 군대 내에서 일어난 자살사고는 '20년에는 42명 수준이었으나 '22년에는 70명, '23년 68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는 군 전체 사망인원의 68%에 해당한다(한국방송뉴스, 2022). 또한, 최근 5년간 군 자살현황을 보면 장교와 부사관을 포함하는 간부자살이 63%(203명)로 병사 자살 37%(117명)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하사, 소위 등 임관 5년 이하의 초임간부 자살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국방대학교, 2023). 이렇듯 변화하는 군대 내 자살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토록 노력해야 하지만 원인의 복잡성과 군 특수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 진행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심윤기 등, 2014). 더불어 지금까지 군내 자살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우울, 불안, 군생활 부적응 등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이에 자살과 관련성 있는 공통요인을 좀 더 포괄적으로 찾아보려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권명훈, 김완일, 2019).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이 자살에 대하여 가지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신념 또는 견해를 의미하는 자살태도(Suicide Attitudes)는 자살위험군의 식별 및 고위험자의 개입과 관련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윤경선, 2016).

자살연구에서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상에 대한 태도와 일관된 행

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정태연 등, 2024). 따라서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자살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박근영, 김지영, 2021; Kim et al., 2022). 그러나 태도는 집단의 문화와 규범을 반영하고 후천적으로 형성되기에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 자살에 대해서도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Olufemi, 2012). Stecz(2021)의 가나, 우간다, 노르웨이, 한국, 미국에서 실시한 자살에 대한 태도 척도(ATTS) 타당화 연구를 보면 국가별로 자살태도의 요인구조가 상이함이 확인되었으며 국내 박은수와 서종한(2023)의 경찰공무원 대상 자살태도 척도(ATTS) 타당화 연구에서도 경찰공무원의 경우 일반인과는 다른 요인구조가 있음이 밝혀졌다. 군인의 경우 입대 후 양성과정을 통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전환되는 군대화라는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군대에서 지켜야하는 규범, 태도 등을 재학습하게 됨으로서 일반인과는 구별되는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김인수 등, 2021). 따라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살태도 척도가 군인을 대상으로는 부정확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집단적인 생활에서 오는 자살시도에 대한 낙인, 관료주의 등은 일반인과 구별되는 군인 집단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Braswell & Kushner, 2012). 국외 Bongar 등(2017)의 군 자살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군인들은 고유의 전사 문화(warrior culture)로 인해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살, 고통,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을 나약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힘, 인내, 희생, 용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aifeh 등(2019)의 미군 대상 연구에서도 군대 내에서 우울, 자살

생각 등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장병 중 21.3%만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받지 않은 장병 중 69.8%는 부대에서의 낙인 등을 고려 심리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국내 권혁철과 이창원(2013)의 연구에서는 수평적·개인적 성향이 강한 외국(미국) 군 문화와 비교할 때 우리 군 문화는 위계적·권위적 성향으로 복종, 동조 압력, 규율 중심 조직문화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윤민재(2008)의 연구에서도 한국군의 경우 남성중심 가부장적 문화가 군 사회화의 요소로 강하게 작용하고 이러한 문화적 요소가 군 자살사고와 연관되어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지인과 권호인(2017)의 연구에서는 군대 내에서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자기 낙인을 강화시키고, 외부로의 도움요청 의도를 약화시키는 경로모형이 유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군의 집단적 문화가 군 자살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군 자살 관련 선행연구들은 군 조직이 지닌 고유한 문화적·구조적 특성에 대한 분석보다는 자살과 연관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으며, 연구 대상 또한 병사 집단에 편중되어 왔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김형래, 2015). 이러한 연구 경향은 군 자살과 관련한 측정도구에서도 확인되는데, 현재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로는 박지연(2013)의 「군 병사용 자살위험성 척도」와 심윤기 등(2014)이 개발한 「한국군 병사용 자살위험 선별척도」로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된 간부 집단은 직업적 선택에 의한 군 복무자로서, 상급자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병사를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 있다. 이러한

역할 특수성으로 인해 간부는 병사와 질적으로 차별화된 직무 부담과 조직 내 갈등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권명훈, 2022), 이들을 포괄하는 자살 관련 요인의 체계적 검증은 매우 제한적이다. 아울러 군인의 자살태도 측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살태도 척도를 군 조직 맥락에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군 고유의 가치체계와 규범, 계급 구조 및 직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군 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선별 및 효과적인 개입 전략 수립에 있어 한계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인의 직무·역할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군인 대상 자살태도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는 학문적·실천적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태도(attitude)란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신념이나 감정, 인지 및 행동 경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대상에 대해 지니는 전반적인 견해를 의미한다. 이러한 태도는 문화, 지식, 교육, 개인적 경험, 대중매체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후천적으로 형성되며, 일단 형성된 이후에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지닌다(오승근, 2005; 이영지, 2015; 정태연 외, 2024).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개인의 경향성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이다(Kodaka et al., 2013). 예컨대 음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개인은 음주를 회피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자살에 대해 수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경우 향후 자살행동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심리적 지표가 될 수 있다(박근영, 김지영, 2021).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태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자살위험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McAuliffe 등(2003)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자살은 개인의 권리이며 정상적인 행동’이라는 진술에 동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omino와 Leenaars(1989)의 연구에서도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심각한 자살생각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자살시도 경험이 있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자살을 보다 수용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Kim 등(2022)의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살태도와 자살행동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가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과 자살태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수정 등(2020)의 연구에서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태도가 보다 허용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Gibb 등(2006)의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조절효과를 보고하였다.

자살태도 측정에 활용되는 도구를 살펴보면 최초 Bayet(1922, Diekstra, 1996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의 두 가지 관점으로만 연구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다차원적 측정도구가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외에서 연구된 자살태도 측정도구는 대략 18개 종류가 있으며 그 중 광범위하게 자살에 대한 태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자살의견설문

(Suicide Opinion Question [SOQ]), 자살태도질문(Suicide Attitude questionnaire [SUIATT]), 자살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Suicide [ATTS]) 3종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Kodaka et al., 2011). 그 중 가장 먼저 개발된 자살의견설문(SOQ)은 Domino 등(1982)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로 감각추구, 충동성 등 태도에 대한 문항 65개와 노화, 종교, 성별, 자살시도 경험 등 인구통계학적 문항 35개를 포함하는 총 15개 요인 100문항으로 제작되었다. Domino 등(1982)은 이러한 자살의견설문(SOQ)을 통해 응답자의 자살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하위요인에 대하여 연구자들 간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측정도구에 대한 이론적인 구조가 없으며 임상 환경이나 대규모 설문조사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설문문항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비판이 있다(Diekstra & Kerkhof, 1989). 하지만 응답자의 전반적인 자살에 대한 견해를 알 수 있고 다양한 집단간 비교가 가능하기에 국외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 자살의견설문(SOQ)을 활용한 자살태도 연구는 극소수이며 권중일 등(2013)의 의사와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한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연구에서 일부 항목이 번안되어 활용되었고 김준형 등(1999)의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자살태도질문(SUIATT)은 Diekstra와 Kerkhof(1989)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감정(affect), 인지(cognition), 도구(instrumental) 요소로 구분하여 자살태도를 측정함으로써 자살의견설문(SOQ)에서 비판 받아온 빈약한 이론적인 구조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였다. 하지만 설문내용에 전문적인 용어가 포함되고 점수에 대한 임

상적 해석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최초 133 문항에서 70개 문항으로 축소 제작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항목 수가 많다는 단점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Botega et al., 2005).

마지막으로 자살에 대한 태도척도(ATTs)는 자살의견설문(SOQ)의 영향을 받아 1986년과 1996년 스웨덴에서 두 번의 대규모 우편 설문 조사를 통해 Renberg와 Jacobsson(2003)에 의해 개발되었다. 최초에는 자살에 대한 태도 문항만 포함되었으나 후에 개인적 문항이 추가되면서 권리로서 자살(suicide as a right), 금기(tabooing), 예방가능성(preventability), 관계성(relation) 등 10개의 요인 34개 문항(ATTs-34)으로 확정이 되었다. 자살에 대한 태도척도(ATTs)는 자살의견설문(SOQ)과 자살태도질문(SUIATT)에 비해 문항수가 적고 설문조사가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비교적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타당화가 되었다. 오승근(2005)은 최초로 자살에 대한 태도척도(ATTs-34)를 번안하여 중·고등학생의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활용하였으며 박종익과 김영주(2014)는 자살에 대한 태도척도(ATTs-34)의 34문항 중 개인적인 질문 문항을 제외하고 ‘허용성 및 불간섭’, ‘예방가능성 및 불가해성’, ‘보편성’, ‘예측불가능성’의 4요인 20문항(ATTs-20)으로 타당화 하였다. Ji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자살에 대한 태도척도(ATTs-34)를 이용하여 국내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11개 요인 32항목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김선아 등(2019)은 성인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수용성(acceptability), 이해력(understandability), 금기(tabooing)의 3개 요인 16문항으로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한편, 최근 국내 Lee 등(2025)의 연구에서 현

역 군인과 비군인 대조군 간 자살생각 및 자살관련 위험요인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비군인 대조군에 비해 자살생각, 우울 및 불안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이러한 차이의 배경 요인으로 엄격한 규칙과 규정, 위계적인 조직문화, 외부 환경과의 단절 등 군 복무의 구조적 특성이 군인의 정신적 취약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맥락적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군 특유의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그리고 이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부응이 군 자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군 자살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군 조직문화와 같은 구조적·환경적 요인보다는 우울, 불안 등 개인의 심리적 위험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권명훈, 김완일, 2019). 이러한 개인 중심적 접근은 군 특유의 집단문화와 조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군 자살 예방 개입의 효과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VanSickle(2013)은 미 해병대 군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살의견설문(SOQ)을 실시한 결과, 해당 도구의 설명력이 민간 표본에 비해 35% 이상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에 VanSickle과 Werbel 등(2016)은 군 특유의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기인하는 자살에 대한 낙인, 즉 자살을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식하는 문화와 자살우려자에 대한 차별적 관리가 군인의 자살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군인(장교·부사관·병) 1,75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부대 내 심리치료에 대한 낙인과 지

휘부의 차별적 관리 등을 반영한 군인의 자살 태도 척도(Military Suicide Attitudes Questionnaire [MSAQ]) 32문항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해당 척도는 개인 기반 거부 대 수용(individual-based rejection vs. acceptance), 부대 기반 수용 대 거부(unit-based acceptance vs. rejection), 정신적 고통 대 병리적 문제(psychache vs. pathological), 도덕적 대 비도덕적 인식(moral vs. immoral)의 4요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척도 개발의 배경에는 자살에 대한 낙인이 도움추구 행동을 방해하고 자살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여(Pompili et al., 2003), 군대 내 낙인을 완화하고 자살우려자가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자살을 예방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MSAQ)는 개발 과정에서 임상 표본이 포함되지 않았고 문항 수가 많아 실제 임무 환경에서 활용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무적용이 저조한 한계를 보였다(Cramer et al., 2022).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Cramer 등(2022)은 불편함(discomfort), 불수용(unacceptability), 공감적 시야(empathic views), 부대의 지원(support)의 4요인, 18문항으로 구성된 군인 자살태도 단축형 척도(MSAQ-SF)로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Cramer 등(2022)이 개발한 군인 자살태도 단축형 척도(MSAQ-SF)를 장병(장교, 부사관, 병사) 집단에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군 자살 예방 실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국판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의 요인구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한국판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

의 신뢰도와 타당도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 1

연구 1에서는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MSAQ-SF)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척도 변안 및 자료를 수집하고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절차

질문지 변안 및 검토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는 원저자(Robert J. Cramer)에게 연구 목적과 대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판 타당화 승인을 요청(메일)하여 '24년 1월 수락을 받았다. 연구자가 일차적으로 설문 문항을 변안하고 상담심리학 전공교수 1명, 상담심리전문가 및 교육학 박사 1명, 상담심리학 박사 1명, 군생활 경험(20년 이상)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과정생 1명이 영어로 된 군인의 자살태도(MSAQ-SF)척도를 검토하여 한글로 번역하고 역번역 하면서 척도 변안의 의미, 정확도, 명확성 등을 확인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자료수집

해군에서 해/육상 부대에서 근무 중 해군 교육부대(경남 창원시)에 1주일간 보수교육차 입교한 장병을 대상으로 2024년 1월 해군의 설문조사 규정의거 승인을 받고 부대 보안성 검토를 거쳐 편의표집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표 1. 연구대상자의 특성 (N = 345)

구분	분류	합계 (명)	백분율 (%)
신분	장교	44	12.8
	부사관	169	49.0
	병	132	38.3
근무지	육상	224	64.9
	해상	121	35.1
복무 기간	1년 미만	43	12.5
	1년 이상 ~ 3년 미만	133	38.6
	3년 이상 ~ 5년 미만	73	21.2
	5년 이상 ~ 10년 미만	55	15.9
	10년 이상	41	11.9

실시하였다.

교육기간 중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실시방법을 설명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96부를 회수하고 그 중 불성실 응답자 51부를 제외하고 최종 345명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간단하게 국방부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보듬말(보고/듣고/말하기) 2.0을 교육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군내 연락처를 소개해 주었다. 설문대상 인원구성은 전체 해군 장교/부사관/병 인원 구성비율과 유사하게 표집하였으며 연구대상자 345명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을 살펴보면 대상은 장교 44명(12.8%), 부사관 169명(49.0%), 병 132명(38.3%)이며 근무지는 육상 224명(64.9%), 해상 121명(35.1%) 순이다. 복무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133명/38.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 방법

SPSS 22.0와 LISREL 8.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설문 문항 간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사용하고 관계가 검증되고 요인 및 관련 항목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활용한다(김원표, 2017). 하지만 척도가 다른 언어로 번역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요인구조에 변화가 생기거나 문항 번역에 따른 의미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Van de Vijver & Tanzer, 2004). 이에 일부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예, 신문혜, 이지연, 2020; 양진원, 권석만, 2022). 이에 따라 한국어로 번안된 군인의 자살태도척도의 타당화 연구는 네 단계로 이루어 졌다. 첫째,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문항별 기술통계량 분석을 통해 극단치의 유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전체 345개의 설문지를 두 개의 하위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회수 순서대로 순번을 부여하였으며 ID가 홀수인 표본(173개)과 짝수인 표본(172개)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홀수번으로 수집된 173명의 자료는 SPSS 22.0 이용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짝수번으로 수집된 172명의 자료는 LISREL 8.8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Fit-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χ^2 , 표준화 잔차비율 등 통계치들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 신뢰도는 전체 표본(345개)을 대상으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산출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도구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

군인의 자살태도척도는 VanSickle과 Tucker 등(2016)이 최초 4요인, 32개의 문항(MSAQ)으로 개발한 문항을 18개 단축형 문항으로 수정, 보완한 Cramer 등(2022)의 설문문항(MSAQ-SF)을 번안/검토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살은 우리 군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등 불편함(discomfort), 불수용(unacceptability), 공감적 시야(empathic views), 부대의 지원(support) 4요인 1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amer 등(2022)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7이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측정하기 위해 안순태와 이하나(2017)가 개발한 자살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 척도는 개인이 자살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무능함(4문항), 부도덕(4문항), 이기적(4문항), 반사회적(4문항), 잔인(4문항), 연민(4문항) 6개 요인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능함, 부도덕, 이기적, 반사회적 점수는 높을수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낙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에 '자살하는 사람은 열성적이다' 등의 자살에 대한 잔인(4문항), 연민(4문항)을 제외하고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 1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안순태와 이

하나(2017)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무능함(.95), 부도덕(.85), 이기적(.86), 반사회적(.8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5였다.

결 과

문항분석

요인분석에 앞서 수집된 자료의 정규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고자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 18개 문항의 기술통계량 확인하였다. 문항의 평균 범위는 2.49 ~ 4.11, 표준편차 범위는 0.82 ~ 1.26 였다. 분포의 특징을 보면 왜도는 -1.65 ~ .45 사이, 첨도는 -1.02 ~ 3.70 사이에 있었으며 왜도 2 이상, 첨도 7 이상의 문항이 없어 문항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었다(Kline, 2011).

탐색적 요인분석

군인의 자살태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345명 중 ID가 홀수인 표본(173명)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시행하기에 앞서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과 표집 적절성 지수(KMO)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Bartlett의 구형성 지표 중 근사 $\chi^2=2079.249(p<.001)$, 표집 적절성 지수(KMO)는 .7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문항들 간에 관련성이 있어 요인분석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학식, 임지훈, 2021).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통요인 분석, 고유값(eigen value),

표 2. 하위요인과 요인적재량

번호	문 항 내 용	요 인 적 재 량			
		1	2	3	4
불수용					
7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875	.026	-.156	.139
6	자살은 이기적인 행동이다.	.861	.064	.001	.100
10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이 자신의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829	-.043	-.127	.152
9	자살은 우리 군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801	.078	.131	.304
5	군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777	-.109	.119	.130
8	나의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자살은 용납 될 수 없다.	.600	-.088	.220	.462
공감적 시야					
15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099	.902	.082	-.075
12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010	.901	.034	-.002
11	자살을 시도하는 군인도 이해와 공감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009	.742	.136	-.188
13	나는 군 생활 스트레스요인이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이해 할 수 있다.	.100	.704	.295	-.143
14	자살충동을 인정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군생활 경력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051	.670	-.112	-.453
부대의 지원					
17	자살을 시도한 군인은 소속 부대 및 지휘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042	.130	.941	.011
16	부대에서의 지원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02	-.001	.902	-.035
18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050	.268	.880	.131
불편함					
2	나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자살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과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	.130	.029	.144	.869
3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진급을 하거나 군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278	-.250	-.070	.691
4	나는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편할 것이다.	.368	-.192	-.008	.622
1	나는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 군인을 신뢰 할 것이다.	.080	-.111	-.025	.343
Eigen Value (고유값)		5.23	3.76	2.41	1.17
Variance Explained (설명변량)		29.07	20.88	13.39	6.49
Total Variance Explained (누적설명변량)		29.07	49.95	63.34	69.83

scree 도표를 확인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를 보면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 4개가 전체 변량의 69.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4개의 요인구조가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문항 중 자살태도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1번 문항(역채점문항)의 경우 요인적재량(0.4이하)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척도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군인의 자살태도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345명 중 ID가 짝수인 표본(172명)에 대하여 LISREL 8.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법(ML)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모수치를 추정하고 상대적 모형적합지수인 TLI와 CFI,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 χ^2 , 표준화 잔차의 비율 등 통계치들을 확인하였다. TLI, CFI는 .90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 RMSEA는 .10이하이면 모델의 적합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2000).

표 3에서처럼 초기 18문항의 모형부합도를 확인결과 $\chi^2=455.87(df=129)$, NFI=.79, TLI=.80, CFI=.83, RMSEA(90% 신뢰구간)=.12(.11~.13)로 적합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의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4개의 잠재변인이 18개의 측정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검증하고자 요인적재량과

표준오차를 확인한 결과 초기모형 중 불편함 1번 문항의 경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같이 요인적재량(0.17)이 미흡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초기 모형의 적합도가 미흡함에 따라 구성개념들 간의 가설적 관계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측정 변인들의 신뢰도와 단일차원성 검증을 실시하였다(Hunter & Gerbing, 1982).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사용하나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이 문항의 전체상관, 내적일치도, 탐색적 요인분석 방법보다 단일차원성 검증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각 측정변인의 하위척도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이은희, 2004; Anderson & Gerbing, 1988). 방법은 표 4에서처럼 하위척도 중 초기문항의 부합도가 양호한 공감적 시야와 부대의 지원률 제외하고 척도마다 표준화 잔차가 큰 문항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식으로 부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인적재량이 낮은 1번 문항(0.4이하)과 표준화 잔차(2.58 이상)가 많은 문항(6번, 7번)을 차례로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들을 부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냈다(Jöreskog & Sörbom, 1993).

표 5에서처럼 최종 선정된 문항들의 부합도를 확인하였으며 $\chi^2 = 267.23(df=84)$, NFI=.82, TLI=.83, CFI=.86, RMSEA(90%신뢰구간)=.11(.09~.13)으로 초기모형 대비 전체 문항의 부합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5문항으로 구성된 최종모형의 확인적 요인

표 3. 군인의 자살태도척도의 초기문항들의 부합도

문항수	χ^2	p	NFI	TLI	CFI	RMSEA	표준화잔차
							>2.58 개수(%)
초기	18	455.87	.001	.79	.80	.83	.12 32(20.9%)

표 4. 각 하위척도들의 초기문항들과 최종 선정문항들의 부합도

하위 척도	문항		χ^2	df	p	χ^2/df	TLI	CFI	RMSEA	표준화잔차
										>2.58 개수(%)
불편함	초기	4	.52	2	<.005	111.46	1.00	1.00	.00	0(0%)
	최종	3	0	0	1.00	-	-	-	0.00	0(0%)
불수용	초기	6	56.67	9	<.001	741.73	.90	.94	.18	5(33.3%)
	최종	4	.51	2	=.77	284.18	1.00	1.00	0.00	0(0%)
공감적 시야	초기	5	3.69	5	=.59	594.23	1.00	1.00	.00	0(0%)
	최종									
부대의 지원	초기	3	0	0	<.001	-	1.00	1.00	.00	0(0%)
	최종									

표 5. 군인의 자살태도척도의 최종문항들의 부합도

								표준화잔차
문항수		χ^2	p	NFI	TLI	CFI	RMSEA	>2.58 개수(%)
최종	15	267.23	<.001	.82	.83	.86	.11	20(19%)

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구성 타당도

먼저 LISREL에 의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변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배병렬, 2014). LISREL에 의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특정 개념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 적재량이 .50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이며,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70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하위척도에 대한 AVE와 CR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인의 자살태도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2 ~ .88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인의 자살태도 각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하위척도에 대한 AVE와 CR을 계산한 결과, 불편함(AVE: .45, CR: .70), 불수용(AVE: .53, CR: .82), 공감적 시야(AVE: .56, CR: .83), 부대의 지원(AVE: .71, CR: .8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편함 척도를 제외하고는 불수용,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 척도는 수렴타당도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Fornell과 Larcker(1981)가 AVE가 .50이하여도 요인적재량이 .50이상이고 CR이 .60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수렴타당도라고 주장한 바 있어서 불편함 척도의 수렴타당도도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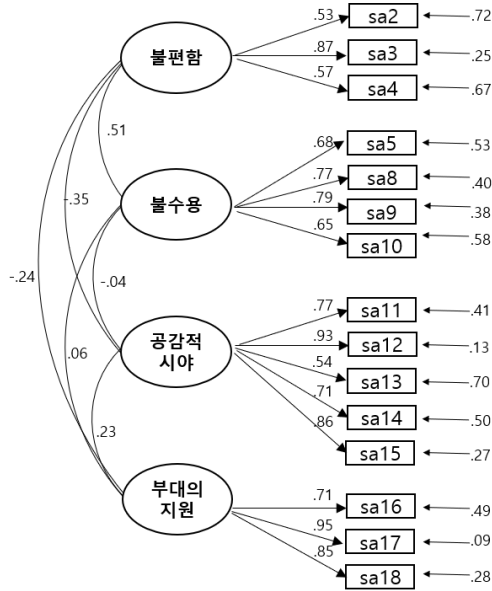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15개문항)

표 6. 군인의 자살태도척도 하위척도들의 신뢰도와 구성타당도 분석 결과

하위척도	Cronbach's <i>a</i>	AVE	CR
불편함	.72	.45	.70.
불수용	.83	.53	.82
공감적 시야	.88	.56	.83
부대의 지원	.88	.71	.88

야, 부대의 지원 4요인으로 구성된 본 연구는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별타당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Φ^2)을 상회하여야 한다. 즉 AVE 값이 Φ^2 보다 크면 변별타당도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림 1에서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가 가장 큰 값은 불편함과 불수용으로 $r = .51$ 이며 이를 제곱하면 .26으로 불편함 척도의 AVE값(.45)보

표 7. 군인의 자살태도 하위요인과 자살의 사회적 낙인과의 상관분석

	군인의 자살태도	자살의 사회적 낙인
1. 자살태도_총점		.55***
2. 불편함		.37***
3. 불수용		.63***
4. 공감적 시야		.11*
5. 부대의 지원		.01

주. * $p < .05$, *** $p < .001$

다 작기 때문에 변별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군인 자살태도의 수렴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사한 개념인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보면 부대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살태도 총점 및 자살태도 하위 요인(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야)들 모두 사회적 낙인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55$, $p < .001$; $r = .37$, $p < .001$; $r = .63$, $p < .001$; $r = .11$, $p < .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인의 자살태도의 하위 요인들은 적절한 수렴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변안한 한국판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의 타당화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별개의 집단(실무장병 184명)을 대상으로 연구 1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

당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자살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방 법

자료수집 및 분석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해군부대에서 연구 1과 구별된 해군장병 대상으로 2024년 3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50부를 배부하고 219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 응답자 34부와 극단치로 추정되는 1명을 제외하고 최종 184명에 대한 결과를 SPSS 22.0와 LISREL 8.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

연구 1에서 번안/타당화한 Cramer 등(2022) 연구의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MSAQ-SF)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살은 우리 군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등 불편함(discomfort), 불수용(unacceptability), 공감적 시야(empathic views), 부대의 지원(support) 4요인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살생각(SIQ)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는 Reynolds(1988)가 개발한 SIQ(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신민섭(1992)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자살생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보았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살생각의 수

준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 수준으로 구분하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신민섭(199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2였다.

우울(CES-D)

우울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을 전경구 등(2001)이 수정/보완한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CES-D는 우울 감정, 긍정적 감정, 신체/행동 둔화, 대인관계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문항은 4점 Likert 식 척도로 평정되며 문항내용은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주어도 울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울 감정, 신체/행동 둔화의 점수가 높고, 긍정적 감정의 점수가 낮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전경구 등의 연구(2001)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0.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우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 이었다.

결 과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 1에서 4요인 15문항으로 타당화된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를 별도의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부합도

표 8. 군인의 자살태도척도(KMSAQ) 부합도

문항수	χ^2	df	p	NFI	TLI	CFI	RMSEA
15	122.93	84	<.001	.94	.98	.98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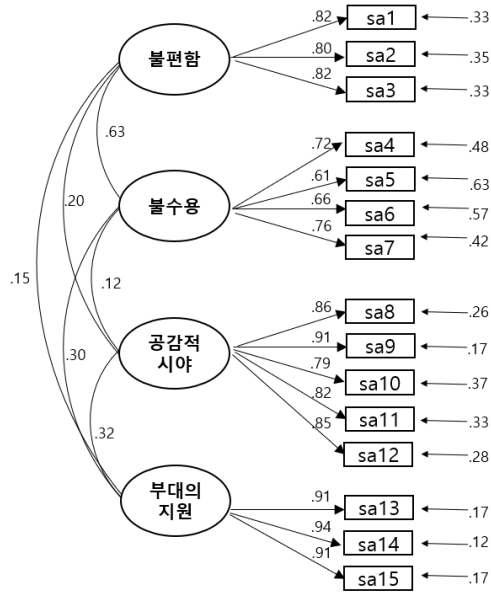


그림 2. 확인적 요인분석 최종모형(15개문항)

는 표 8에서 처럼 $df=.84$, $NFI=.94$, $TLI=.98$, $CFI=.98$, $RMSEA(90\% \text{ 신뢰구간})=.05(.023 \sim .068)$ 로 양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하위척도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4개 요인에 대한 표준화된 요인적재량은 .61에서 .94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성 타당도

교차 타당화 집단을 대상으로 각 하위척도에 대한 AVE와 CR을 계산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군인의 자살태도

표 9. 군인의 자살태도척도 하위 척도들의 신뢰도/구성타당도 분석 결과

하위척도	Cronbach's α	AVE	CR
불편함	.86	.66	.86
불수용	.78	.48	.78
공감적 시야	.92	.72	.91
부대의 지원	.94	.85	.94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는 .78 ~ .94로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군인의 자살태도 각 하위요인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하위척도에 대한 AVE와 CR을 계산한 결과, 불편함(AVE: .66, CR: .86), 불수용(AVE: .48, CR: .78), 공감적 시야(AVE: .72, CR: .91), 부대의 지원(AVE: .85, CR: .9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불수용 척도를 제외하고는 불편함,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 척도는 수렴타당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Fornell과 Larcker(1981)가 AVE가 .50이하여도 요인적재량이 .50이상이고 CR이 .60이상이면 수용가능한 수렴타당도라고 주장한 바 있어서 불수용 척도의 수렴타당도도 수용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자살태도의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별타당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Φ^2)을 상회하여야 한다. 즉 AVE값이 Φ^2 보다 크면 변별타당도가 있다고 해석한다. 그림 2에서 하위요인 간 상

관이 가장 큰 값은 불편함과 불수용으로 $r = .63$ 이며 이를 제곱하면 .40으로 불수용 척도의 AVE값(.48)보다 작기 때문에 변별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0의 척도간 상관분석을 보면 군인의 자살태도 하위변인 불편함 요인은 불수용($r = .52$, $p < .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공감적 시야($r = .19$, $p < .05$), 부대의 지원($r = .13$, $p < .05$)과는 낮은 정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수용 요인은 공감적 시야($r = .15$, $p < .05$)와는 낮은 수준, 부대의 지원($r = .29$, $p < .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여주었으며 공감적 시야 요인도 부대의 지원과($r = .30$, $p < .001$)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군인의 자살태도 하위변인 중 불편함과 불수용,

공감적 시야와 부대의 지원은 서로 관련성이 높지만 다른 하위요인들과는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군인의 자살태도의 하위 요인들은 적절한 변별 타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준거 타당도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의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준거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군인의 자살태도 총점은 자살 생각($r = -.56$,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우울($r = -.13$, $p > .05$)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

표 10. 군인의 자살태도척도와 하위척도간 상관관계

군인의 자살태도		1	2	3	4	5	6	7
1.	자살태도_총점	1						
2.	불편함	.67***	1					
3.	불수용	.71***	.52***	1				
4.	공감적 시야	.59***	.19*	.15*	1			
5.	부대의 지원	.66***	.14*	.29***	.30***	1		

주. * $p < .05$, *** $p < .001$

표 11. 군인의 자살태도 하위 요인과 자살생각 및 우울과의 상관관계

군인의 자살태도		자살생각	우울
1.	자살태도_총점	-.56***	-.13
2.	불편함	-.45***	-.01
3.	불수용	-.49***	-.19*
4.	공감적 시야	-.32***	-.13
5.	부대의 지원	-.33***	-.08

주. * $p < .05$, ** $p < .01$, *** $p < .001$

났다. 군인의 자살태도 하위변인인 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 모두 자살생각(각각, $r = -.45, p < .001$; $r = -.49, p < .001$; $r = -.32, p < .001$; $r = -.33,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편함,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은 우울(각각, $r = .01, p > .05$; $r = -.13, p > .05$; $r = -.08, p > .05$)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으며 불수용만 우울($r = -.19, p < .05$)과 낮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군인의 자살생각 하위 요인들이 자살생각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차별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군인의 자살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군 특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국어판 MSAQ-SF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척도 변안, 요인분석을 통한 문항구조의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연구 2에서는 독립 표본을 통해 척도의 타당도를 재확인하고 자살 관련 변인과의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 및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는 원척도와 동일하게 불편함, 불수용, 공감적 시야, 부대의 지원의 네 가지 요인 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인의 자살태도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개념이며, 자살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반응과 인지적 평가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요인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문항에서는 문화적 차이 또는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조정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어, ‘불편함’ 요인 중 1번 문항(나는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 군인을 신뢰 할 것이다)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기준치($< .40$)에 미치지 못하여 제거되었으며, ‘불수용’ 요인 중 “자살은 이기적인 행동이다(문항 6)” 및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문항 7)”는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준화 잔차가 2.58을 초과함에 따라 척도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개인적 도덕 판단에 기반한 내용으로, 한국 군 문화에서는 자살에 대한 태도 형성에 상대적으로 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일 요인에 포함된 “자살은 우리 군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문항 9)” 및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이 자신의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문항 10)” 문항은 채택되었다. 이는 VanSickle과 Tucker 등(2016)의 연구 결과와 같이 군인에게 있어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개인의 도덕정보보다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과 집단적 가치 위반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연구 1에서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초기 18문항 중 일부 문항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산출된 분석으로, 최종 15문항 모형을 확정하기 이전 단계의 검증 절차라는 점에서 안정화 이전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분석적 맥락을 반영하듯, $\chi^2 = 267.23 (p < .001)$, CFI = .86, TLI = .83, RMSEA = .11로 전반적인 적합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화 잔차가 2.58을 초과하는 문항 비율도 19%로 확인되었다. 이는 문항 정제가 완료되기 이전 단계에서 산출된 적합도로, 척도의 구조 개선 가능성을 탐색하고 최종 문항 구성을 확정하기 위한 과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연구 2에서는 연구 1을 통해 확정된 요인구조가 독립된 표본($n = 184$)에서도 안정적으로 재현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타당화를 실시하고, 자살 관련 변인과의 준거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결과로 연구 1에서 도출된 4요인 구조는 교차타당화 집단에서도 $\chi^2 = 122.93(df=84, p < .001)$, CFI=.98, TLI=.98, RMSEA=.05로 우수한 모형 적합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본 척도의 요인 구조가 특정 표본에 국한되지 않고 군인 집단 전반에 적용 가능한 안정적인 구조임을 시사한다. 한편,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한 점에 대해 동일 분석의 반복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구 1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초기 18 문항 중 부적합 문항을 선별·제거하기 위한 구조 검증 및 문항 정제 단계에서 수행된 분석인 반면,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정제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15문항 모형을 대상으로 독립 표본에 기반한 교차타당화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분석의 목적과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두 단계의 확인적 요인분석은 중복적 절차가 아니라, 척도의 구조적 안정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 분석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연구 2의 준거타당도 확인결과 군인의 자살태도 척도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관계($r = -.56, p < .001$)를 나타내었다. 이는 군인의 자살태도 측정 점수가 높은 장병일수록 자살생각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본 척도가 군인의 자살위험을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임을 시사한다. Escolas 등(2010)은 군 자살 연구의 주요 한계로, 자살과 사고사의 구분이 어려운 점과 군 특유의 문화로 인해 장병들이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을 회

피하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군 장병은 자살위험군에 해당하더라도 부대 내 공식적인 자살위험성 평가나 심리지원 절차를 통해 자신의 상태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척도는 자살행동이나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묻기보다 자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간접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장병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심리적 저항을 유발하고, 자살위험을 조기에 선별/개입하는 데 활용 가능한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한편, 하위요인 중 ‘불수용’ 요인은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r = -.19, p < .05$)를,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r = .63, p < .01$)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살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우울과 정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이수정 등, 2015), 그리고 우울이 허용적 자살태도를 매개로 자살생각을 강화한다는 Gibb 등(200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만, ‘불수용’ 요인이 자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인 점은, 자살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자살 우려자에 대한 혐오나 낙인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의 자살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타인의 자살 역시 용인하지 않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살과 관련된 개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위험을 내포한다. 이러한 해석은 집단주의와 남성성을 강조하는 군대 문화가 자살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 Martinez(2022)와 Lunasco 등(201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군 자살 예방 정책 및 교육에서는 자살에 대한 불수용 태도를 단순한 도덕적 판단이나 규범적 통제로 접근

하기보다, 낙인을 완화하고 도움추구 행동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입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항 수를 최소화하면서 핵심 요인을 포함하는 15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판 군인 자살태도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친 연구(연구1: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연구2: 교차타당화 집단 확인적 요인분석)를 통해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기존 국내에서 타당화된 자살에 대한 태도척도(ATTS)의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Ji 등(2016)은 허용성, 금기, 자살을 통한 문제해결, 신념, 보편성, 공감 등 11개 요인 구조를 제시하였으며, 박종익과 김영주(2014)는 허용성 및 불가한성, 예방가능성 및 불가해성, 보편성, 예측불가능성의 4개 요인 구조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ATTS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자살에 대한 허용성 요인을 제외한 다수의 요인에서는 점수와 자살 위험성 간의 관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Cwik et al., 2017). 또한 요인이 세분화되어 있어 자살위험 선별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실무적 제약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Stecz, 2021).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자살에 대한 ‘불편함’과 ‘불수용’요인이 기존 ATTS의 ‘허용성’ 요인과 개념적으로 유사한 측면을 지니면서도, 측정 방식에 있어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타당화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공감적 시야’와 ‘부대의 지원’요인은 집단주의적 군 조직 문화에서 파생되는 자살에 대한 편견과 개입문제를 반영한

요인으로, 기존 자살태도 척도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들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자살을 비난하기보다, 군 집단의 상호 책임성 차원에서 자살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제공하려는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자살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국내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군 조직은 민간과 구분되는 고유의 문화, 계급 구조, 임무 수행 방식 등을 지니며, 특히 지휘관이 장병의 건강 및 치료 결정, 약물 복용 여부, 직무수행 가능성 등에 실질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김기춘 등, 2014; Gibbons et al., 2014). 이러한 구조는 자살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군 특수성을 반영한 자살태도 척도 개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군인을 위한 표준화된 자살태도 척도가 부재한 실정이며, 실무 현장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타당화된 척도들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살에 대한 태도 척도인 ATTS-34는 원척도에서는 10개 요인 34문항으로 개발되었으나, 국내 타당화 과정에서 대상군에 따라서 상이한 요인구조로 변형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10개 요인 34문항(오승근, 2005),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11개 요인 32문항(Ji et al., 2016), 일반 성인에게는 3개 요인 16문항(김선아 등, 2019)으로 축소·재구성되는 등 적용 대상별로 일관된 구조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군인 집단에 적용하기에는 개념적·문화적 적합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는 군 조직의 문화적 특성과 인식을 반영하여 군 장병에게 적합한 자살태도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 실무 현장에서 보다 신뢰도 높고 타당한 방식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하고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섯째, 자살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가치관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문화적 경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심리사회적 구성요소이다(정태연 외, 202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살태도를 측정하는 도구는 고정된 구조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자살태도 측정도구인 자살의견설문(SOQ)은 개발된 지 40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며, 자살에 대한 태도 척도(ATTIS) 역시 20년 이상 사용되어 왔다. 이들 척도는 초기 개발 당시의 문화와 사회 인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나 문화적 전환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Cramer 등(2022)이 개발한 비교적 최신의 군인 자살태도 척도(MSAQ-SF)를 도입하고, 이를 한국 군 환경에 맞게 간부를 포함하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타당화함으로써 현재 군 조직이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적절히 부응하는 측정 도구를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군 사회 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 간부 자살 증가, 자살 예방 정책 강화, 장병 복지 인식의 변화 등을 반영한 문항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척도는 시의성 있는 평가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단순히 측정도구의 타당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군 문화 속에서 자살태도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

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론적·실천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살태도 관련 군 조직에 특화된 측정도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해군 장병으로 한정되어 있어, 육군, 공군, 해병대 등 타 군별 특수성과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한국군은 각 군별로 상이한 임무환경, 조직문화, 생활 양식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자살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군별 및 계급을 포함한 표본을 확보하여 척도의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별, 계급, 근무 연수, 직별, 근무 형태 등의 개인 및 조직 특성에 따른 자살태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Cramer 등(2022)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남성 군인이 여성보다 자살에 대해 더 부정적인 신념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성별 및 사회화 과정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군 간부의 자살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계층·직책별 차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단 간 특성을 반영한 다변량 분석이나 구조 모형 접근을 통해 자살태도의 영향 요인을 보다 정교하게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제한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를 통해, 군 조직 내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타당한 평가 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방대학교 (2023). 군 자살 예방 교관과정(30기) 교육 교재. 국방대학교 직무연수원.
- 권명훈 (2022). 군 간부의 직무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안녕감을 통한 자기자비의 매개된 조절효과.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명훈, 김원일 (2019). 군인의 자살보호요인과 자살위험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학연구, 26(12), 335-353.
- 권중일, 이유진, 권수진, 백종우, 전준희, 강승걸, 배승민, 김종훈, 조인희, 조성진 (2013). 의사와 보건인력을 대상으로 한 자살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인적 경험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52(4), 231-242.
- 권혁철, 이창원 (2013). 한국군의 조직문화 차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4), 219-241.
- 김기춘, 박계홍, 문재승 (2014). 군 조직에 있어서 직무스트레스 요인이 전투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28(6), 447-477.
- 김선아, 박진영, 이수정, 금란, 김고운 (2019). 한국 성인 대상 자살태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정신간호학회지, 28(4), 382-392.
- 김원표 (2017). 다시 쓰는 통계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와이즈인컴퍼니.
- 김인수, 성기은, 조선웅, 조원선, 김호현, 황원준 (2021). 여성 육군사관생도의 군대사회화 연구: 토픽 모델링 분석. 국방연구, 64(1), 87-114.
- 김준형, 김봉준, 장동원 (1999). 청소년기 여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태도 및 자아상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0(2), 220-235.
- 김지인, 권호인 (2017). 낙인이 자살생각에 대한 도움요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군병사를 대상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7(11), 29-38.
- 김형래 (2015). 병사 자살위험요인 메타분석(meta-analysis)과 자살예방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근영, 김지영 (2021).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의 자살태도, 자살생각 및 자살행동간의 관계. Stress, 29(1), 60-67.
- 박승일, 이동귀 (2014). 군 초급간부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분노표현, 우울, 무망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545-573.
- 박은수, 서종한 (2023). 한국 경찰공무원 대상 자살 태도 측정도구(ATTs) 타당화 연구: ESEM과 Rasch 모형을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23(4), 211-245.
- 박일, 김민순, 고영건 (2013). 직업군인이 군생활을 힘들어 하는 이유는?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26(4), 625-651.
- 박종익, 김영주 (2014). 한국판 자살 태도 설문지(ATTs-20)의 요인구조.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2(1), 91-113.
- 박지연 (2013). 한국군 병사용 자살위험 선별척도 개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4). LISREL 9.1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신문혜, 이지연 (2020). 한국판 긍정도식척도(YPSQ)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125-1151.
- 신민섭 (1992).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윤기, 김완일, 정기수 (2014). 군 병사용 자살위험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4), 929-952.
- 안순태, 이하나 (2017). 자살 시도자를 향한 사회적 낙인 척도의 단축형 개발과 타당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낙인인식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5(4), 83-108.
- 양진원, 권석만 (2022). 한국판 음식기대척도 (AEF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2), 249-271.
- 오승근 (2005). 청소년의 자살태도, 자살위험성 및 생명존중교육 참여 요구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선 (2016). 자살태도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민재 (2008). 한국사회의 군대문화와 군자살사고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담론*201, 11(1), 165-193.
- 이수정, 김선아, 김고운, 박진영, 금란 (2020). 우리나라 성인의 자살 관련 외상 경험과 자살태도, 우울, 자기효능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29(1), 1-13.
- 이수정, 문성미, 이지미, 연규진 (2015). 우울과 자살성의 관계: 자살 허용적 태도와 지인 자살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6(4), 23-43.
- 이영지 (2015). 자살에 대한 태도가 도움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용문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4).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25-52.
- 이학식, 임지훈 (2021). 사회과학 논문작성을 위한 연구방법론: SPSS 활용방법. 집현재.
- 전겸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정태연, 박은미, 박준성, 장민희, 허성호 (2024). *사회심리학*(2판). 학지사.
- 한국방송뉴스 (2022.10.28.) 최근 5년간 군 사망사고 395명 분석... 원인 1위는 자살. <https://www.ikbn.news/news/article.html?no=151403>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ongar, B., Sullivan, G., & James, L. (Eds.). (2017). *Handbook of military and veteran suicide: Assessment, treatment, and prev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otega, N. J., Reginato, D. G., da Silva, S. V., Cais, C. F., Rapeli, C. B., Mauro, M. L., Cecconi, J. P. & Stefanello, S. (2005). Nursing personnel attitudes towards suicide: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scale. *Revista Brasileira de Psiquiatria*, 27(4), 315-318.
- Braswell, H., & Kushner, H. I. (2012). Suicide, social integration, and masculinity in the US military. *Social Science & Medicine*, 74(4), 530-536.
- Cramer, R. J., Montanaro, E., VanSickle, M., Cacace, S., Zabelski, S., Smith, E. L., &

- Cunningham, C. A. (2022). A psychometric assessment of the Military Suicide Attitudes Questionnaire (MSAQ). *Psychiatry Research*, 317, 114849.
- Cwik, J. C., Till, B., Bieda, A., Blackwell, S. E., Walter, C., & Teismann, T. (2017). Measuring attitudes towards suicide: Preliminary evaluation of an attitude towards suicide scale. *Comprehensive Psychiatry*, 72, 56-65.
- Diekstra, R. F. (1996). The epidemiology of suicide and parasuicide.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2(1), 1-29.
- Diekstra, R. F. W., & Kerkhof, A. J. F. M. (1989). Attitudes towards suicide: The development of a suicide-attitude questionnaire (SUIATT). In R. F. W. Diekstra, R. Maris, S. Platt, A. Schmidtke, & G. Sonneck (Eds.), *Suicide and its prevention: The role of attitude and imitation* (pp. 91-107). Brill Sense.
- Domino, G., & Leenaars, A. A. (1989). Attitudes toward suicide: A comparison of Canadian and US college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9(2), 160-172.
- Domino, G., Moore, D., Westlake, L., & Gibson, L. (1982). Attitudes toward suicide: A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8(2), 257-262.
- Escolas, S. M., Bartone, P. T., Rewers, M., Rothberg, J. M., & Carter, J. (2010). Why do soldiers kill themselves? Understanding suicide in the military. In P. T. Bartone, R. H. Pastel, & M. A. Vaitkus (Eds.), *The 71F advantage: Applying Army research psychology for health and performance gains* (pp. 283- 314).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ibb, B. E., Andover, M. S., & Beach, S. R. (2006). Suicidal ideation and attitudes toward suicide.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6(1), 12-18.
- Gibbons, S. W., Migliore, L., Convoy, S. P., Greiner, S. & DeLeon, P. H., (2014). Military mental health stigma challenges: policy and practice considerations. *The Journal for Nurse Practitioners*, 10, 365-372.
- Hunter, J. E., & Gerbing, D. W. (1982). Unidimensional measurement, second order factor analysis, and causal model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4, 267-320.
- Ji, N. J., Hong, Y. P., & Lee, W. Y. (2016). Comprehensive psychometric examination of the attitudes towards suicide (AT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Systems*, 10(1), 1-6.
- Jöreskog, K. G., & Sörbom, D. (1993). *LISREL 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Kim, M. J., Lee, H., Shin, D., Hong, M., Rhee, S. J., Park, J. I., & Ahn, Y. M. (2022). Effect of attitude toward suicide on suicidal behavior: Based on the Korea National Suicide Survey. *Psychiatry Investigation*, 19(6), 427-434.
- Kline, R. B. (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Guilford Press.

- Kodaka, M., Inagaki, M., & Yamada, M. (2013).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suicide: Among Japanese pharmacists participating in the Board Certified Psychiatric Pharmacy Specialist Seminar. *Crisis*, 34(6), 420-427.
- Kodaka, M., Poštuvan, V., Inagaki, M., & Yamada, M. (2011). A systematic review of scales that measure attitudes toward suicid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57(4), 338-361.
- Lee, Y. S., Lee, J. H., & Kim, H. J. (2025).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anxiety, impulsivity, self-esteem, emotional regulation, child trauma, and hopelessness in Korean military soldiers. *Healthcare*, 13(18), 2356.
- Lunasco, T. K., Goodwin, E. A., Ozanian, A. J., & Loflin, E. M. (2010). One shot-one kill: A culturally sensitive program for the warrior culture. *Military Medicine*, 175(7), 509-513.
- Martinez, A. (2022). Mental health stigma in the military context. *Silicon Valley Sociological Review*, 20(1), 76-89.
- McAuliffe, C., Corcoran, P., Keeley, H. S. & Perry, I. J. (2003). Risk of suicide ideation associated with problem-solving ability and attitudes toward suicidal behaviour in university students. *Crisis*, 24, 160-167.
- Naifeh, J. A., Mash, H. B. H., Stein, M. B., Fullerton, C. S., Kessler, R. C., & Ursano, R. J. (2019). The Army Study to Assess Risk and Resilience in Servicemembers (Army STARRS): Progress toward understanding suicide among soldiers. *Molecular Psychiatry*, 24(1), 34-48.
- Olufemi, T. D. (2012). Theories of attitudes. In C. D. Logan & M. I. Hodges (Eds.), *Psychology of attitudes* (pp. 61-78). Nova Science Publishers, Inc.
- Pompili, M., Mancinelli, I., & Tatarelli, R. (2003). Stigma as a cause of suicide.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3(2), 173-174.
- Renberg, E. S., & Jacobsson, L. (2003). Development of a questionnaire on attitudes towards suicide (ATTTS) and its application in a Swedish popula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3(1), 52-64.
- Stecz, P. (2021).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questionnaire on attitudes towards suicide (ATTTS) in Poland. *Current Psychology*, 40(5), 2528-2542.
- Van de Vijver, F., & Tanzer, N. K. (2004). Bias and equivalence in cross-cultural assessment: An overview.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54(2), 119-135.
- VanSickle, M. (2013). *Opinions on suicide and perceived barriers to care in a sample of United States Marine non-commissioned officers: Implications for future frontline supervisors' suicide prevention training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Uniformed Services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 VanSickle, M., Tucker, J., Daruwala, S., & Ghahramanlou-Holloway, M. (2016).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ilitary Suicide Attitudes Questionnaire (MSAQ).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3, 158-165.
- VanSickle, M., Werbel, A., Perera, K., Pak, K., DeYoung, K., & Ghahramanlou-Holloway, M.

(2016). Perceived barriers to seeking mental health care among United States Marine Corps noncommissioned officers serving as gatekeepers for suicide prevention. *Psychological Assessment*, 28(8), 1020-1025.

원 고 접 수 일 : 2025. 10. 21

수정원고접수일 : 2026. 01. 05

게 재 결 정 일 : 2026. 02. 13

The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Military Suicide Attitudes Questionnaire(KMSAQ)

Youngchul Lee¹⁾

Eunhee Lee²⁾

¹⁾Naval Leadership Center / Leadership Instructor

²⁾Former Professor of Psychology at Kyungnam University &
President, Korean Schema Therapy Association

Recently, suicide within the military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but its practical application in the field has been limited due to the lack of an appropriate measurement tool. Accordingly, in Study 1, the Military Suicidal Attitude Short Scale (MSAQ-SF; Cramer et al., 2022) was translated into Korean. For this purpose, data from 345 participants (soldier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for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The analyses confirmed that the original scale's four factors were retained. However, three items with insufficient factor loadings were removed from the original 18 items. In Study 2, data from an additional 184 soldiers were collected as a separate sample, and cross-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developed in Study 1 was conduc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to support suicide prevention in the Korean military and to facilitate practical interventions in the field.

Key words : Military Suicidal Attitudes, Discomfort, Unacceptability, Empathic Views, Unit Support

부 록

군인의 자살태도척도(KMSAQ)

* Korean version of Military Suicide Attitudes Questionnaire(KMSAQ)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과거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자살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과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2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진급을 하거나 군에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1	2	3	4	5
3	나는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자살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불편할 것이다.	1	2	3	4	5
4	군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	2	3	4	5
5	나의 종교적 신념에 따르면 자살은 용납 될 수 없다.	1	2	3	4	5
6	자살은 우리 군의 핵심 가치에 위배된다.	1	2	3	4	5
7	자살하는 사람들은 자살이 자신의 부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	1	2	3	4	5
8	자살을 시도하는 군인도 이해와 공감을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	1	2	3	4	5
9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1	2	3	4	5
10	나는 군 생활 스트레스요인이 어떻게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지 이해 할 수 있다.	1	2	3	4	5
11	자살충동을 인정했다고 해서 누군가의 군생활 경력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1	2	3	4	5
1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은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다.	1	2	3	4	5
13	부대에서의 지원은 자살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	2	3	4	5
14	자살을 시도한 군인은 소속 부대 및 지휘부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1	2	3	4	5
15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소속 부대원들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 하위척도 : 1/2/3번 불편함, 4/5/6/7번 불수용, 8/9/10/11/12번 공감적 시야, 13/14/15번 부대의 지원